



지역 소식

새로 부름 받은 지역 칠십인 김창호 장로



지난 4월 2일과 3일에 걸쳐 진행된 제181차 연차 대회에서 서울 영동 스테이크의 김창호 형제가 한국의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 받았다. 이로써 한국에는 배덕수 장로와 오희근 장로를 포함해 세 명의 지역 칠십인이 봉사하게 되었다. 김창호 장로는 차수연 자매와의 사이에 세 명의 딸을 두고 있으며 서울 영동 스테이크 회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해 왔다. 또한 2009년의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와 2010년의 'SMYC,' 그리고 2011년에 있을 'EFY'에서도 준비위원장을 맡아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김창호 장로가 전하는 간증을 소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커다란 두려움과 중압감을 함께 느끼면서, 성스러운 주님의 사업에 제가 장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분 곁으로 인도하는 일에 제가 작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지금까지 사랑과 모범으로 인도해주신 여러 신앙의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저는 2011년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 동안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본부에서 신임 지역 칠십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의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훈련 받는 동안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주님의 영을

느꼈으며, 성신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새롭고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합당성을 유지할 때 하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행사할 때 성신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신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시련에 대비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훈련 모임에서 저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종들은 정말로 겸손하신 모습이었고, 사랑이 넘치고 친절했으며 다정다감 했습니다. 그분들은 영으로 가르치셨으며 저로 하여금 계속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실한 주님의 종들께 감사드리고 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그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때가 찬 경륜의 시기에 회복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임을 간증으로 전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살아계신 선지자이시며,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는 신권의 열쇠를 지니신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임을 간증으로 전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 땅에 복음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이시며, 우리 모두가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 전임 선교사들과 부부 선교사들의 간증을 소개한다.



모든 것 잘되리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
내가 본
선교사들은
항상 행복해

보였다. 그래서 선교 사업은 행복하지만 한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너무 힘들었다. 길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너무도 달랐다. 나는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매일 간구했다. 그러자 처음에는 어려웠던 일들이 경험과 훈련을 통해 극복 가능한 일들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선교 사업을 한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나는 선교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 기도로 물었다. 진심 어린 기도였다.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 속에는 찬송가 16장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불렀다. "동반자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지역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모든 것 잘되리……."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사랑하게 된 것들이 정말로 많다. 가족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고, 동반자, 봉사하는 지역, 만나는 사람들, 회원들, 동료 선교사들, 복음, 경전, 찬송가, 리아호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주님의 사업은, 주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이 사업을 위해 언제나 앞장 설 것이다.
부산 선교부, 허혜진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기쁨
선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불친절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그들을 싫어하고 화를 내기 보다는 니파이의 모범을 따라 "그들이 내게 행한 바를 모두 흔쾌히 용서"하고 그들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큰 행복과 기쁨을 찾게 된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았지만, 선교사가 된 지금은 그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조금씩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기란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분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바랄 만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주님의 사업에 앞장 서신 그리스도를 따라 "열국을 위한 평화의 기"가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서울 선교부, 박장택 장로

주님의 사도
맑게 개인 2월 19일 아침, 나를 포함한 대전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삼성 와드 앞마당에 모여 있었다. 우리 선교사들이 마음은 기쁨과 행복으로 들떴다. 날씨는 완벽했고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대전 선교부를 향해 오시는 쿡 장로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찼다. 우리 선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찬송가 145장 '주 섬기라'를 부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쿡 장로님께서 타신 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우리들의 찬송이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에서 이미 쿡 장로님을 한 번 뵈었다. 하지만 선교사로 그분 앞에 서게 되자 그 감흥이 사뭇 달랐다. 모임을 하는 동안 쿡 장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간증하셨고, 나는 선교사들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주님의 종인 사도와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고, 나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값진 경험을 통해 간증을 더욱 키울 수 있었다. 선교 사업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간절하고 고귀하다. 나는 이 사업이 세상의 것 이상으로 기뻐할 만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이 선교 사업이 만민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왼쪽부터: 허혜진 자매, 박장택 장로, 안기범 장로, 길의정 자매, 정덕진 장로와 정영순 자매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대전 선교부, 안기범 장로

MTC에서 얻은 간증

MTC로 가는 길 내내 나는 참 많이 떨었다. 1년 반 동안 헤어져야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공인 무용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주님과 약속했기에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유타에 도착했다. MTC를 향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멀리서 보이는 성전과 교회 건물들을 보면서 나는 참 많이 울었다. MTC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주라는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벅차고 행복해서 씻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자주 울었다. 내 MTC 동기들은 모두 훌륭했고 정말 큰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런 동기들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비가 안 된 사람 같았다. 수업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에게서는 선교 임지에서 구도자들에게 당당히 전할 간증이 필요했다. MTC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답답했고 하루 종일 우울했다. 그날 밤 나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했다. “주님, 저에겐 주님의 복음을 전할 간증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을 얻게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왔다. 그 다음날, MTC

교사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시면서 DVD를 틀어주셨다. 회복이라는 제목의 그 DVD를 보면서 나는 성신이 나와 함께 동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마음속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이해와 간증이 커갔다. 나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나는 구도자와 토론할 때 회복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자신 있게 전한다. 조셉 스미스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MTC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다. 선교 사업은 주님의 사업이다. 현재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매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한다.
부산 선교부, 길의정 자매

이렇게 아름다운 일

30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하다가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게 된 나는 가난한 농사꾼이다. 작은 과수원을 가꿨던 적도 있고 고추 농사를 했던 적도 있지만 한 번도 풍족하지는 않았다.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만은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분께서 다 마련해 주시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우리 부부가 선교 사업을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가진 돈도 없고, 다른 선교사들처럼 젊거나 많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부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간증과 사랑만이 풍족하기 때문이다.

살아오면서 슬한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적으로는 늘 부족했다. 하지만 한 번도 십일조를 거르지 않았다.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었다.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내가 재배한 농산물을 다른 이들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물론 이 일로 수입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돈보다 더 값진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 나는 농사 말고도 건축이나 장사 등 다양한 일을 했다. 그 경험이 구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친구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나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칠 지혜는 없지만 참된 복음의 기쁨을 전할 지혜는 있다. 그 사실에 주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침례식에 참석하거나 새로운 구도자를 만날 때마다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
대전 선교부, 정덕진 장로, 정영순 자매

전 임 선교사들이 전하는 간증을 모집합니다. 현재 봉사 중인 전임 선교사 여러분이 선교 임지에서 겪은 영적인 경험이나 얻게 된 간증, 혹은 선교 사업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전건우 형제
- 주소: 서울시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리아호나 지역 소식 담당자 앞. 우)133-600
- 전화: 02)2232-1441
- 메일: aron1979@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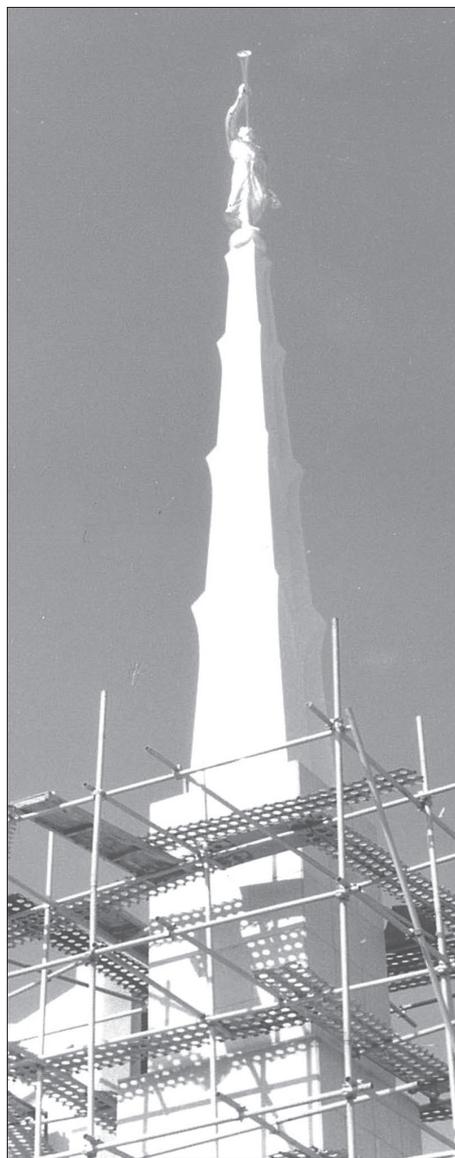
한국 서울에 성전이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서에서는 한국 서울 성전 건립 과정과 성전 헌납에 관한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교회가 낱이 발전해 나가던 1981년에 발표된 성전 건립 소식은 한국의 모든 후기 성도들에게 기쁨이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서울 성전이 건립되면서 한국의 성도들은 영원한 결혼과 엔다우먼트 등 여러 성전 의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립은 한국 교회사에 기념할만 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성전은 언제 세워질까?

1970년대를 지나 8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성도들 사이에서는 심심치 않게 이런 질문이 오갔다. 당시 한국 교회는 전국 곳곳에 스테이크와 지방부가 조직되고 다양한 선교 활동을 통해 개종자가 증가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제 한국 성도들에게 필요한 곳은 주님의 집인 성전이었다. 특히 1980년에 동경 성전이 헌납되면서 성전에 대한 소망은 어느 때보다 강렬해졌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전이 건립되도록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했다.

1981년 4월 제151차 연차 대회는 그 소망과 간구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 대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한국 서울 성전의 건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동경 성전이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토록 빨리 소망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대회에 참석했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입에서는 연신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성전 건립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국 성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각 지역에서 성전 건립에 감사하는 간증이 이어졌다.

성전 건립 과정

한국의 성도들은 성전 기금에 모두가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집을 장만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미루고 성전 기금에 참여했다. 약정 금액보다 4배나 많은 헌금이 모였다. 그에 따라 성전의 설계도 세 번이나 변경되어 원래 계획보다 더 웅장한 성전을 건립하게 되었다.

성전 건립 발표 후 2년이 지난 1983년 5월 9일에 성전 기공식이 있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가 첫 삽을 떴다. 그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터파기를 하던 중 토질이 당초 예상과 달라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 시청각 장비의 국내 수입 문제도 큰 걸림돌이었다. 당시의 무역법으로는 유사한 장비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수입을 금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문제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기적으로 해결되었다. 설계 변경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장비 수입도 정부 관리의 개입으로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성전 프로젝트를 감독했던 캘빈 와델 형제는 2년 반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성전 완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했다. 그는 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 “이대로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집입니다.”

한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표준으로 완공된 성전은 대지가 2,420평이었고, 성전 건물은 341평, 그리고 부속 건물 및 지하 차고가 439평으로 완공되었다. 정원은 1.047평으로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 푸르른 잔디로 꾸며졌다. 성전에는 탑이 전면과 후면에 각각 3개와 6개씩 세워졌다. 성전 중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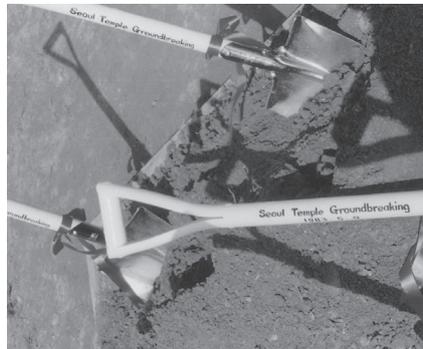
제일 높은 탑에는 모로나이 천사가 나팔을 불며 세상에 회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다. 성전 건축은 1985년 가을에 종료되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 계절에 주님의 집 또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성전 완공 소식에 기뻐했고, 이어지는 헌납식을 위해 분주하게 준비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서울 성전은 처음에는 신전이라 불렀으나 1985년 11월 11일부터 성전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공식 당시의 모습과 기공식에 사용했던 삽. 삽자루에 '서울 성전 기공식'이라 새겨져 있다.



성전의 건립 과정.



EFY 프로그램 소개

E FY는 작년에 열렸던 SMYC와 기본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은 새롭게 바뀌었다. 게임들이 모두 바뀌었고, 무도회에서 추게 될 춤 또한 새로운 것이다. 음악 프로그램에서 부르게 될 노래와 주제가 등도 새 옷을 갈아입었다. 2011 EFY에서 각 요일 별로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7월 25일 월요일-가정의 밤

전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이고, 처음으로 조원들과 만나게 되는 월요일. 청소년들은 '가정의 밤' 활동을 통해 우정을 쌓게 된다. '가정의 밤'은 운영위원장의 공과와 단합과 우정을 배울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또 '가정의 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과도 준비된다. 이 활동은 이상적인 가정의 밤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가정의 밤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7월 26일 화요일-무도회

작년 SMYC에 참석해 본 청소년은 안다. '무도회'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춤 추는 모습은 장관 그 자체다. 모두 어울려 어깨를 부딪치고, 땀을 흘리고, 웃고, 소리 지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즐거움과 행복감이 선물처럼 남는다. EFY 홈페이지(www.efy.lds.or.kr)에서

미리 라인댄스를 배워서 참석한다면 '무도회'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7월 27일 수요일-게임의 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EFY에서 사흘만 보내면 조원들과 친해질 수 있다. '게임의 밤'은 서로가 얼마나 친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청소년들은 연합조 구호를 만들고, 동작을 연습하고, 개성이 묻어나는 연합조 깃발을 만들면서 사랑과 우정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연합조 대항으로 즐기는 여러 게임들이다. 올해는 작년과 완전히 달라진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 게임들이 상상 이상으로 즐거우며 신나리라는 사실이다.

7월 28일 목요일-청남/청녀 활동, 버라이어티 쇼, 노변의 모임, 간증 모임

작년 SMYC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다. 오전부터 진행되는 청남/청녀 활동은 각자의 고민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 버라이어티 쇼는 표준 안에서도 얼마나 즐겁게 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노변의 모임은 음악이 수놓는다. 청소년 합창단이 준비하는 여러 노래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간증이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증 모임에서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는 기적과 같은 순간을 체험하게 된다.

7월 29일 금요일-봉사 활동

작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봉사 활동이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작년과는 내용도, 형식도 싹 바뀌었다. 그러나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 ■



친절 KINDNESS

20 10년 10월 연차 회의를 마치면서, 토마스 몬슨 회장님은 여러 세대 동안 선지자들이 소리 높여왔던 권고의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제 회의는 막을 내립니다. …… 서로에게 더 큰 사랑[친절]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1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4:32)”라고 권유했습니다.

고든 비 힐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더 확고하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저는 일반적으로 후기 성도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관대하고 친절하며, 사려 깊고 참을성이 있으며, 유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에게 틀림없습니다.”(“각자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99쪽)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온 인류에게 축복을 전하기를 갈망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26쪽에서 재인용)라고 말했습니다.

친절에는 사랑과 동정심, 염려, 도움, 용서, 관대, 사려 깊음, 관용처럼 비슷한 성격의 여러 다른 단어가 포함됩니다. 다른 많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때 우리는 친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은 단지 부드러운 명사가 아니라 행동과 힘으로 가득 찬 명사입니다. 친절은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축복할 수 있습니다.

1936년에 제일회장단에서 교회 복지 계획을 처음으로 소개했을 때,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지 사업의 장기적인 목표는 도움을 주고 받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성품을 키우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끌어내며, 영적으로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아호나 지역소식, 2010년 7월호, 1쪽]

몬슨 회장님은 어떻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친절의 행동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어린 시절의 경험담을 나눈 적이 있으십니다. 몬슨 회장님은 남파 아이들이 야구 놀이를 할 때 우연히 마당 안쪽으로 떨어진 공을 모두 모아 두었던 이웃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공을 모두 가져가 버린 쉬나스 부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린 토미 몬슨은 집안 일과를 하던 중에 쉬나스 부인의 잔디가 누렇게 말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날 시작하여 여름 내내, 토미는 자기 집의 물 호스로 쉬나스 부인의 잔디에 물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토미 몬슨은 쉬나스 부인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쉬나스 부인이 그가 한 친절의 행동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에 쉬나스 부인은 문을 열고 토미에게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나스 부인은 토미에게 우유와 쿠키를 내주며, 모아두었던 공을 모두 돌려주셨습니다. 이 경험에 관해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공들이 가득 든 상자를 제게 내미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소중했던 것은 그 선물이라 아니라 그 부인의 말이었습니다. 쉬나스 부인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미야, 이 야구공들을 가지렴. 내게 친절을 보여줘서 고맙구나.’”(영원한 항해,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56쪽)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을 받아 친절을 베풀 것이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친절한 행동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자주 감사함을 표하지 않아서, 우리도 역시 나아가 친절을 베풀게 하는 훌륭한 일면과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책-인용 수정)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때와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도록 합시다. 친절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의 배려를 받는 입장일 때에는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친절을 받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라는 단순한 말 한마디는 친절의 행동을 보상하는 최상의 방법이며, 그렇게 할 때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13명/해외 11명



구병모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금촌 와드
대전 선교부



구영원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김애림 자매
수원 스테이크
울전 와드
템플스퀘어



김진우 장로
마산 스테이크
풍호 와드
서울 선교부



김현진 자매
서울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
템플스퀘어



문세화 자매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박의창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춘천 지부
런던 선교부



배성수 장로
장정희 자매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대전 선교부



안기훈 장로
수원 스테이크
신풍 와드
서울 선교부



윤나영 자매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워싱턴 디시 남 선교부



윤보섭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부산 선교부



이성재 장로
마산 스테이크
풍호 와드
서울 선교부



이수희 자매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선교부



이양건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대전 선교부



이예섭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일본 고베 선교부



이하늘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
부산 선교부



최민기 장로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서울 선교부



임보희 자매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성남 와드
캘리포니아 산타로사
선교부



최준규 장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서울 선교부



전찬재 장로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황준성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
부산 선교부



최선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캘리포니아 산호세
선교부



황희승 장로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
대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지부 회장: Montgomery, Hayden Kethi 장로(전임: Dunnaway, Logan Mark 장로)
태백 지부 지부 회장: 이승명 장로(김영호)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 지부 회장: 김옥태 장로(전임: 진민용 장로)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감독: 백두현(전임: 문황업)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 감독: 김양우(전임: 정원웅)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감독: 배상혁(전임: 우성춘)
상계 와드 감독: 신동식(전임: 김용태)
장위 와드 감독: 방재원(전임: 한석용)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와드 감독: 이주대(전임: 박영준)
서울 북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박성식(전임: 손병호)
금촌 와드: 이재환(전임: 구본훈)
순천 지방부
광양 지부 지부 회장: 유복상(전임: 안태훈)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 감독: 김영성(전임: 김원주)
울산 지방부
호계 지부 지부 회장: 홍중윤(전임: 이수철)
제주 지방부
서귀포 지부 지부 회장: 김준배(전임: 조원태 장로)
창원 스테이크
마산 스테이크에서 창원 스테이크로 명칭 변경
창원 와드에서 도계 와드로 명칭 변경
스테이크 회장: 이송근(전임: 김충석)
청주 스테이크
제천 지부 지부 회장: 신성식(전임: 김영운)